

부산시장 보궐선거 모니터

- 문서번호 2021미디어감시연대_부산시장보궐선거모니터_02
- 수 신 미디어 및 NGO 담당 기자, 사회부 기자
- 발 신 2021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미디어감시연대(공동상임대표 김동훈·김서중·윤창현·복성경)
- 제 목 공방과 갈등만 중계하면서 '정책 실종' 우려는 모순, 후보검증·정책 보도 언론이 먼저 시작하라
- 날 짜 2021년 3월 17일(수)

공방과 갈등만 중계하면서 '정책 실종' 우려는 모순 후보검증·정책 보도 언론이 먼저 시작하라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확정과 함께 선거 경쟁이 시작되었고 후보에 대한 검증도 본격화 되었다. 특히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후보에 대해 언론과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지역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의 의혹제기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측의 반박을 적극 보도하였으나 취재를 통한 검증보다 상호 공방을 중계하는 데 치중했다.

양당 공식 행사 및 후보 행보 전달 비방·갈등 프레임에 기반한 판세분석에 치중

구분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총보도수	325(21)	352(27)	72(64)	63(37)	53(21)	863
선거보도	37(4)	43(2)	10(5)	10(6)	6(4)	106
비중	11.4%	12.2%	13.9%	15.9%	11.3%	12.3%
지난 주 대비	+2%	+4%	-3.3%	-5.5%	-1.9%	+1.8%

△ <표 1> 선거보도 건수, 신문 ()는 사진기사 건수, 방송 ()는 단신기사 건수

3월 둘째 주 부산시장 보궐선거 보도 건수는 총 106건으로 전체 보도의 12.3%였다. 3월 첫째 주 대비 1.8% 증가했다. 신문은 스트레이트 기사가 6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칼럼 4건, 인터뷰 기사가 2건이었다. 방송 뉴스는 후보와 정당 행보를 단순 전달하는 단신이 15건, 리포트는 11건이었다.

선거 기획·사실 확인 보도는 1건으로 3월 12일자 부산일보의 <여 "부인이 미대 채점위원

에 '딸 잘 봐 달라' 청탁"...박 "딸 시험 안 쳐, 100% 날조"> 기사가 유일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포맷이 사실확인 보도지만, 내용은 박형준 후보의 입장을 그대로 전하는 수준에 그쳤다.

보도유형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보도유형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스트레이트	27	38	65	리포트	5	4	2	11
의견/칼럼	2	2	4	단신	5	6	4	15
기획/사실확인	0	1	1	기획/사실확인	0	0	0	0
인터뷰	2	0	2	인터뷰	0	0	0	0
기타	2	0	2	기타	0	0	0	0
포토뉴스	4	2	6					

△ <표 2> 기사 유형

정당과 후보에 대한 보도 비중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았다. 먼저 정당 언급은 더불어민주당 73회, 국민의힘 67회 언급되어 양당을 합치면 전체의 93.3%를 차지했다. 후보 언급은 김영춘 후보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박형준 후보가 55건이었다. 양당 본선 진출 후보로 김영춘, 박형준 후보가 확정되면서 지난주 대비 두 후보의 언급 빈도가 높아져 전체 후보 언급 기사의 80.6%를 차지했다.

소수정당 후보 보도는 단독 없이 정당 행보를 전하거나 후보군 정리 보도에 포함하는 정도였다.

언급정당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더불어민주당	19	34	9	7	4	73
국민의힘	20	27	9	7	4	67
진보당	1	1	1	1	1	5
민생당	0	0	1	0	0	1
미래당	0	1	1	0	0	2
개혁자유연합/무소속	0	1	1	0	0	2
합계	40	64	22	15	9	150

△ <표 3> 기사에서 한 번 이상 언급된 정당

언급후보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김영춘	17	22	8	7	3	57
박형준	15	22	8	7	3	55

노정현	1	1	1	1	1	5
정규재	0	1	1	0	0	2
배준현	0	0	1	0	0	1
손상우	0	1	1	0	0	2
합 계	33	47	20	15	7	122

△ <표 4> 기사에서 한 번 이상 언급된 후보(경선 결과 확정 후보만 기재)

선거보도 주요 내용은 후보와 정당의 행보를 전하는 기사가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정당과 후보의 선거 일정과 활동을 단순하게 전하는 스케치 기사였다. 후보 행보와 함께 공약을 전하는 기사가 3건 있었지만, 자세한 설명이나 검증 없이 후보들의 발표 공약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쳤다.

보도내용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후보 인물/약력	1	4	0	0	1	6
정책/공약	1	0	1	1	0	3
경선 결과	3	2	0	1	0	6
선거 전략	6	7	0	1	0	14
판세/여론조사 분석	7	8	2	1	0	18
후보/정당 공방	5	5	1	2	1	14
후보/정당 동정	12	7	6	3	3	31
시민사회 운동/동향	1	1	0	1	0	3
투표율/투표독려	1	1	1	0	1	4
기타	1	7	0	0	0	8

△ <표 5> 보도내용

다음으로는 선거 판세를 전망하는 기사가 18건이었다. 이 중 여론조사 보도는 4건이었고, 나머지 14건은 발생 이슈(엘시티 특혜 분양, LH 사태, 국정원 4대강 사찰 문건 등)가 각 정당에 어떻게 유·불리로 작용할 것인지 전망하는 내용이었다.

후보에 제기된 의혹 '네거티브'로만 치부하고 각 정당과 후보들의 공방만 증계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각 정당과 후보들의 발언을 담은 후보·정당 공방 보도가 14건 있었다. 각 정당과 후보가 발표한 보도자료와 발언을 따옴표를 이용해 그대로 실어나르는 공방 나열이었다.

의혹에 대한 추가 취재나 다른 취재원 인용은 거의 없었다. 특히 제목에 ‘선공’, ‘십자포화’, ‘공세’, ‘맹공’, ‘공방 격화’, ‘엄포’ 등 양 당의 대결을 극대화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갈등 상황을 강조하고 있었다.

보도날짜	매체	제목
3월 09일	국제신문	여 "LH 자체조사" 진화 나섰지만...야 "검찰 직접 나서라"
3월 09일	국제신문	"박 자질 검증" 선공 날린 김, "내가 할 소리" 되받아친 박
3월 10일	국제신문	엘시티 리스트에 국힘 인사도 포함
3월 10일	부산일보	LCT리스트' 여야 모두 "진실 밝히자"
3월 11일	부산일보	민주 "박=MB 아바타" 맹공...박형준은 "신 관권선거" 맞불
3월 11일	부산MBC	김영춘 "사죄하라"..박형준 "정치공작"
3월 11일	KNN	부산시장 선거, '불법사찰' 공방 격화
3월 11일	KBS부산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야 국정원 사찰 논란 확산
3월 12일	국제신문	불법사찰.엘시티 여야 전면전 양상
3월 12일	국제신문	여, 박 사찰 연루의혹 문건 십자포화...박은 법적대응 엄포
3월 12일	부산일보	딸 입시 의혹에 '엘시티'까지 여, 박형준에 연일 십자포화
3월 12일	부산일보	"허무맹랑한 네거티브 공세" 박후보, 즉각 법적대응 나서
3월 12일	부산일보	여 "부인이 미대 채점위원회에 '딸 잘 봐 달라'청탁"...박 "딸 시험 안 쳐,100%날조"
3월 14일	부산MBC	4.7보선, 정책선거 실종..또 진흙탕 싸움으로?

△ <표 6> 공방-갈등 강조한 보도 목록

특히 박형준 후보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을 국민의힘 측의 발언을 따옴표로 그대로 인용하여 ‘가짜뉴스’, ‘마타도어’, ‘네거티브 공세’ 등으로 선거용 정치공작으로 치부하는 경향을 보였다.

3월 12일 국제신문 <여당, 박형준 사찰 연루의혹 문건 십자포화...朴은 법적대응 엄포>, 부산일보 <딸 입시 의혹에 '엘시티'까지 여, 박형준에 연일 십자포화>, <"허무맹랑한 네거티브 공세"... 박후보, 즉각 법적대응 나서>에서 국민의힘과 박형준 후보측의 ‘엘시티 특혜 분양’,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 ‘딸 대학 입시’ 관련 의혹을 여당이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붓는다’,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었다. 반면 박 후보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혹 제기를 제목에서부터 ‘허무맹랑한 네거티브 공세’로 규정하고, ‘거짓의 성’, ‘어이없는 폭로’, ‘갑툭튀 공작’, ‘국정원 찌라시’, ‘터무니없는 공작 DNA’, ‘흑색선전’ 등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전했다.

반박하는 박형준 후보의 입장만 전할 뿐이었다. 정작 이 건에 대해 상세히 기억하고 증언해 줄 수도 있다는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 등 다른 취재원에 대한 추가 취재나 새로운 정보는 전혀 없었다.

지역 방송뉴스도 마찬가지였다. 3월 11일 KBS부산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야 국정원 사찰 논란 확산>, 부산MBC <김영춘 "사죄하라"..박형준 "정치공작">, KNN <부산시장 선거, '불법사찰' 공방 격화> 보도에서 '논란 확산', '공방 격화' 등의 표현으로 관련 의혹 제기엔 팩트체크 없이 양측의 공방만을 중계했다.

선거 시기에 제기되는 의혹일수록 언론은 각 진영의 입장만 앵무새처럼 전하기보다 의혹의 실체가 무엇인지 당사자에게 되묻고, 검증하는 후속 취재를 진행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부산 지역언론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검증보다는 각 진영의 공방만 중계하여 정치갈등으로만 부각시키고 있었다.

세계여성의 날, 지역언론에선 여성의제 실종 후보 행보 전달에만 그쳐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이 어떠한 발언과 행보를 보였는지를 전한 보도는 단 4건이었다.

부산MBC <D-30, 이번엔 정책선거 되나?>(3월 8일)와 KBS부산 <부산시장 보궐선거 D-30' 여야 대진표 완성...선거운동 돌입>(3월 8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본선 진출 확정 기자회견에서 오거돈 전 시장 성비위를 사죄하는 의미에서 큰절을 했다는 내용과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선대위 안에 '여성본부'를 꾸리고 중앙당 서약식에 참석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후보 행보에 따른 여성의제를 언급하는 수준이었다.

국제신문은 <가덕신공항시대 글로벌 혁신의 리더 원한다>(3월 9일)에서 박형준 후보가 '성범 죄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성 관련 공약을 발표한 것과 정부여당 심판을 위해 여성의 힘을 보여달라는 표심을 공약한 다소 선거전략적 내용을 SNS에 작성한 것을 전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성의제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부산일보가 유일했다. <"절박한 성평등 의제, 정작 부산시장 보궐선거선 실종">(3월 9일)에서 '세계 여성의 날 시민단체 선언' 기자회견을 보도하며 이번 보궐선거에서 성평등 문제는 절실한 화두이자 절박한 요구라는 이들의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이 기사 역시 10면 사회면 하단에 게재되어 주목도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절박한 성평등 의제, 정작 부산시장 보궐선거선 실종”

‘세계 여성의 날’ 시민단체 선언

“권력형 성폭력으로 실시되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성평등 의제는 찾아볼 수 없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113주년을 맞아 부산 시민단체들이 성평등 부산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달라며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부산본부,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부산의 시민단체들은 8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여성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는 4월 예정된 시장 보궐선거를 맞아 후보자들이 상징적 의미에 초점을 맞춘 성평등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신라대학교 청소노동자 대표 김청룡 씨는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산재판정을 받은 직업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여성이 밀집된 직업이 가장 많고 지난해에만 59만 명 이상의 여성이 일자리를 잃는 등 여성의 노동환경이 더욱 열악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집회 참가자들은 전임 시장의 권력형 성폭력으로 실시되는 이번 부산시



부산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8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113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부산여성노동자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원태 기자 wkang@

장 보궐선거에 성평등 의제는 실종됐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성평등의 문제는 절실한 하두이자 절박한 요구라며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해 생활 속 성평등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영미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지금까지 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에는 성평등에 대해 고만한 흔적이 안 보인다”면서

“출산하면 현금지원과 같은 단편적인 정책이 아니라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도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주여성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이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폭력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소수자들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탁경륜 기자

△ <그림 3> 부산일보 3월 9일 10면 성평등 의제 실종 보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로 그 어느 때보다 여성 의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후보들의 성인지·성평등 감수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나열되기만 하는 여성 공약은 이번 선거의 의미를 더 퇴색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언론은 후보들의 소극적인 여성 공약 발표와 행보를 전하지만 말고, 부산지역의 성평등을 위해 후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다시 되물어야 할 것이다.

**정책 선거 실종 우려만 말고
정책 선거로 이끄는 것도 언론의 역할!!!**

부산MBC 3월 14일 <4.7보선, 정책선거 실종..또 진흥당 싸움으로?>에서는 기대했던 정책선거는 사라지고, 각 당의 ‘네거티브’ 선거가 시작됐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방을 전했다. 이번 선거 역시 경제와 일자리 공약은 사라지고 진흥당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 <그림 4> 부산MBC 3월 14일 정책선거 실종 우려 보도

정책선거는 각 정당과 후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니터기간 지역 언론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 보도는 없었다. 제기되는 의혹에 정치권의 공방 중계만 하지 말고 언론이 나서서 되묻고 검증한다면, 적어도 유권자가 우려하는 ‘진흙탕 선거’에 언론이 ‘한편’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지역언론이 이슈 관련 의혹 제기예 팩트체크로 답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서로 헐뜯고 싸우고 있다는 식’의 공방으로 몰아가는 안일한 보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따옴표로 후보자와 선거 캠프의 격한 말싸움을 중계하는 보도는 유권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정치혐오, 선거혐오만 일으키는 일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모니터 기간	2021년 3월 8일(월)~3월 14일(일)
모니터 매체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모니터 대상	‘선거’를 한 번이라도 언급한 기사이거나 후보, 지지율, 공약, 유세 등의 단어를 언급해 4·7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연관됐다고 볼 수 있는 기사

<끝>